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이동휘*· 황민섭**· 윤종화***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灸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¹⁾²⁾³⁾⁴⁾,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針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

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堅立되었다⁵⁾⁶⁾.

《素問》· 《靈樞》에서 針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成就를 이루었지만 多様な 技術이나 理論이 體系化되지 않았으며,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針法을 體系的으로 論述하였고,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⁷⁾⁸⁾⁹⁾.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 1) 이정훈, 윤종화 :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 181-200.
- 2)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 (2) : 139-179
- 3) 서용원·윤종화·김갑성 :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脈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 지. 2002 : (19) 1 : 210-224.
- 4) 임성철·손성철·이경민·황민섭·김갑성·윤종화 : 古代의 經脈診斷法 중 十二經脈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19 (5) : 1-9.

- 5) 황민섭·손성철·배대영·김갑성·윤종화 : 古代 經脈病證體系에 있어 “是動則病”과 “是 主某所生病”에 關한 研究. 2002 : (19) 2 : 14-27.
- 6) 신광순·장준혁·윤종화 :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19 (1) : 210-214.
- 7) 凌耀星 :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 146-150.
- 8) 晁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 94-102.
- 9) 姜建國. 李樹沛 : 傷寒析疑.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9. p.7.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의 太醫令 王叔和가 醫書를 收集하고 整理하여 《脉經·卷七》에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 의 次例로 轉載되어 있으며¹⁰⁾, 《千金翼方·卷九·卷十》의 唐本傷寒論¹¹⁾¹²⁾, 北宋의 校正醫書局의 校訂 後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되었고¹³⁾, 宋以後의 《傷寒論》의 研究는 王叔和의 編輯이 있다고 여겨 加筆 혹은 增補한 部分을 削除, 修訂 및 註釋을 하여 《傷寒論》의 本來의 모습으로 復原하는 것을 目的으로 “錯簡重訂” “舊論守護”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었다¹⁴⁾¹⁵⁾.

한편, 《傷寒論》의 研究에 있어 朱¹⁶⁾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¹⁷⁾

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¹⁸⁾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 하였고, 山田¹⁹⁾은 “宋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 하였다.

이에 論者는 《傷寒論·序文²⁰⁾²¹⁾》에서 引用한 文獻과 內容으로 《素問》 《靈樞》의 經脈理論·經脈病候의 諸篇 및 《難經》과 《傷寒論》의 相關關係의 考察은 經絡學說의 認識深化에

10) 福州市人民醫院 : 脉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7. 344-485.
《脉經·序文》 “…… 其王, 阮, 付, 載, 吳, 葛, 呂, 張, 所傳異同, 咸悉載錄. ……”

11) 李景榮 : 千金翼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p. 127-168.

12) 錢超尖 校注 :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1-332.

13) 劉渡舟 :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9. pp. 2-4.

14) 喋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pp. 90-130.

15) 鄭城采 : 傷寒 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東國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 126-184.

16) 朱肱 著. 임진석 옮김 : 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8. pp. 1-19.

17) 陳明·劉燕貨·張保偉 撰次整理 :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pp. 17-22.

18)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 162-166. 178-198.

19)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 178.

20) 蔡仁植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5. pp. 1-8.
“…… 勤求古訓, 博採衆方,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 并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 雖未能盡愈諸病, 庶可以見病知源, 若能尋余所集, 思過半矣. ……”
夫天布五行, 以運萬類, 人品五常, 以有五臟, 經絡府俞, 陰陽會通 ……”

21) 喋橘泉 收藏 :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pp. 1-3.
“…… 勤求古訓, 博採衆方. (注)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 并平脈辨證” 宋本보다 6년 정도 앞서 抄寫되었고 《傷寒論》 傳本 中에서 唐本으로 보이는 日本에서 발견된 康平本에는 《傷寒論·序文》의 古典 引用 文獻이 注로 處理되어 있음.

必要하다고 思料되어 《傷寒論》의 六經病 提綱²²⁾²³⁾이 形成된 淵源과 《素問》 《靈樞》 및 《難經》의 經脈理論과의 相關성을 《傷寒論》의 註釋書를 中心으로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II. 本論

1. 三陰三陽의 意味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 (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少陰 厥陰 (兩陰交盡, 至絶作朔晦) 으로 多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되고, 《素問·至眞要大論》 “氣有多少, 異用也”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의 三陰三陽說의 形成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²⁴⁾는 “兩

部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蕪陰(或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²⁵⁾, 《黃帝內經》과 中古醫籍 中에서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脉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 現在 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의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 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緯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⁶⁾.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으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과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闢樞로 說明하였고,

22) 陳明·劉燕貨·張保偉 撰次整理 : 劉渡舟 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pp. 212-217.

23) 李心機 :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pp. 69-76.

24)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12.

25) 李心機 :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pp. 40-41.

26) 王玉川 :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 6-9.

《靈樞·根結》에는 開闢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熱性病의 傷寒症狀을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관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闢樞說” 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 의 二種類가 있으며²⁷⁾, 姜²⁸⁾은 “《素問·熱論》의 六

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고 《傷寒論》에서 理論과 臨床에서 飛躍의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²⁹⁾.

<表. 1>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提綱

來源 六經名	《素問·熱論》 六經分證	《傷寒論》 六經病 提綱 或 證
太陽	斗項痛, 腰脊强	脉浮, 斗項强痛而惡寒
陽明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	身熱, 自汗, 渴飲, 便結, 潮熱, 譫語
少陽	胸脇痛而耳聾	口苦, 咽乾, 目眩, 胸脇苦滿, 寒熱往來
太陰	腹滿而噎乾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少陰	口燥舌干而渴	脉微細, 但欲寐, 惡寒身卷, 手足厥冷
厥陰	煩滿而囊縮	消渴, 氣上衝心, 胸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蛔, 下之利不止

27) 王玉川 :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 48-51.

28) 姜建國, 李樹沛 : 傷寒析疑.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9. p.21-23.

2. 六經病 提綱의 形成 淵源

《傷寒論》의 六經病의 提綱은 《注解傷寒論³⁰⁾》에서 提出된 것은 아니며, 《傷寒論條辨³¹⁾》에서 六經病의 綱의 雛形을 隱匿하고 있으며, 《尙論³²⁾》에서 六經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³³⁾》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脈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였고, 《傷寒貫珠集³⁴⁾》에서 此條를 “…… 故柯氏目爲六經之綱領, 而此則爲太陽之綱領也. …… , 學者當參合他條, ……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論綱目·總論³⁵⁾》에서는 六經의 提綱을 <六經主症> 篇을 構成하여 總論에 偏在하였고, 《醫宗金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³⁶⁾》에

- 29) 李心機 :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pp. 51-52.
- 30) 成无己 :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6. p.54.
- 31) 龐有執 :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大成出版社. 1995. p.775-7
- 32) 喻嘉言 : 喻嘉言醫學全書·尙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9.
- 33) 柯琴 :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7.
- 34) 尤怡 : 傷寒貫珠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 2-3
- 35) 沈金鰲 :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614-619.

서 六經病의 脈과 證을 包括하는 概要로서 六經病의 提綱의 位置를 格上시켰고, 陳³⁷⁾는 “六經病의 提綱을 脈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六經經脈經氣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說明하고 六經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³⁸⁾》 “六經病의 提綱은 六經의 發病이며 傷寒의 六經이 아니다. ……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 하였고, 《傷寒約編·太陽證提綱³⁹⁾》에서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六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고, 山田⁴⁰⁾은 “宋 以後의 《傷寒論》

- 36) 吳謙等編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0.
- 37) 陳恭溥 :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 237.
- 38) 柯琴 :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7.
- 39) 西大椿 : 西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 807.
- 40)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p. 191-192.

醫學의 歷史의 段階, 醫療의 現實 및 臨床醫學者들의 檢索의 便利라는 세 가지 조건을 합친다면 《脈經》 傷寒의 偏在가 治療法에 따른 可·不可로 되어 있는 것은 合理性이 있다. 그러나 當時의 醫家들은 三陰三陽에 따른 分類 및 六經辨證은 認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六經辨證은 원래 《傷寒論》 속에 內藏되어 있었지만 마치 溶液 속에서 結晶을 析出할 수 있는 것처럼 《傷寒論》에 根據한 임상 經驗을 쌓아 가는 동안 三陰三陽病의 脈證 群(群)과 治療法 (군)群간의 大應關係를 알아내고 《傷寒論》이란 용기 속에서 조금씩 六經辨證을 析出되어 가는 過程이 《傷寒

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 하였다.

3.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相關性.

《素問·熱論》의 “傷寒一日, 巨陽受之, …… 六日厥陰受之.” 의 引用文으로 생각되는 《傷寒論·傷寒例第三(41)》의 제90조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 尺寸俱微者, 厥陰受病也.” 및 《傷寒論》의 三陰三陽病의 條文을 成⁴²⁾이 처음으로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經絡의 三陰三陽으로 註釋한 後에 朱登⁴³⁾⁴⁴⁾⁴⁵⁾은 《素問》 《靈樞》의 經絡理論과 연계된 經絡의 六經病으로 解釋하였고, 韓⁴⁶⁾은 《傷寒論》

論》 研究의 歷史이다.

- 41) 顧武軍 : 傷寒論·傷寒例第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35.
- 42) 成无己 :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6. p.54.
- 4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 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8. pp. 2-3.
“發熱惡寒 斗項痛 腰脊強 則知病在太陽經也.”
- 44) 喻嘉言 : 喻嘉言醫學全書·尙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9.
- 45) 龐有執 :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大成出版社. 1995. p.775-7
- 46) 韓祗和 : 歷代中醫珍本集成 (三)·傷寒微旨論. 上海. 上海三聯書店. 1989. pp.

의 三陰三陽의 六經病은 手의 三陰三陽經으로는 傳變되지 않고 足의 三陰三陽經으로 傳變된다는 “傷寒傳足不傳手說”을 主張하였고, 黃⁴⁷⁾은 “《傷寒論》에서 足經만 言及하고 手經을 言及하지 않은 것은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豁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다.

柯⁴⁸⁾는 “《傷寒論》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經絡의 病候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며 …… 仲景의 六經은 六個로 區分된 地面이며 (六區地面說), 經絡上의 經絡으로 立說한 것이 아니며 廣義의 脈으로서의 經絡이다” 하였고, 尤⁴⁹⁾는 “十二經絡은 相互 聯關되어 있고 各 經은 畔界(領域의 經界)가 있다.” 하여 六經을 領域의 境界로 說明하였다. 그러나 六經의 「地面과 畔界」의 內容은 《素問·熱論》과 同一하나 立論한 意義는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張⁵⁰⁾⁵¹⁾과 陳⁵²⁾은 《傷寒論集注》 및 1-2.

- 47) 黃元御 : 黃元御醫書全集·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 539-541.
- 48) 柯 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7.
- 49) 尤 怡 : 傷寒貫珠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 2-3
- 50) 張志聰 :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27.
- 51) 喋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pp. 90-130.
- 52) 陳修園 :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81

《傷寒論宗印》와 《傷寒論淺注》에 서는 《靈樞·經脈》의 手·足三陰三陽의 經脈의 循行部位와 《素問》 運氣七篇의 六經氣化의 標本中氣의 從化規律 및 開闔樞의 氣化理論으로 解釋하였고, 楊⁵³⁾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는 手·足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였다.

한편 俞⁵⁴⁾는 「六經形層說」을 提示하여 “傷寒六經은 단지 外邪가 人體에 侵襲하는 經路이며 身體에 生成된 痰飲, 水飲, 瘀血, 渣滓 등의 滯留의 部位이며 病이 生成되고 轉變하는 經路로서 三焦을 벗어나지 않는 六個의 形層의 段階일 뿐이며 傷寒六經은 經絡六經과 差異가 있다.” 하였고, 惲⁵⁵⁾은 “人體에 病이 없으면 六經은 存在하지 않고 發病의 症狀을 分類하는 六種類의 「界說」을 提示하고 三陰三陽은 表裏 寒熱 虛實을 表明한 概念이며 臟腑經絡의 配屬關係가 아니다.” 하였고,

53) 揚力 :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p. 203-206.

54) 俞根初 : 重訂通俗傷寒論.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1976. pp. 1-2
 太陽經主皮毛 陽明經主肌肉 少陽經主膜理 太陰經主肢末 少陰經主血脈 厥陰經主筋脈
 太陽內部主胸中 少陽內部主膈中 陽明內部主脘中 太陰內部主大腹 少陰內部主小腹
 厥陰內部主小腹

55) 惲樹珏 : 歷代中醫珍本集成(5)·傷寒論研究.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 9-24.

劉⁵⁶⁾는 “《傷寒論》의 六經은 經絡學說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한편 《傷寒論》의 六經의 다른 見解들인 「段階」「地面」「症候群」「六病」「八綱」 등의 說法은 《素問·熱論》의 經絡六經과 差異가 크지 않다.” 하였고, 李⁵⁷⁾는 “三陰三陽은 辨證의 同異를 求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의 理致는 腹背表裏에 있어 經絡의 傳變을 求할 必要가 없다.” 하였다.

그리고 柯⁵⁸⁾는 “《素問·熱論》의 六經은 全的으로 經脈을 爲主한 病이며 表裏의 實熱만 있고 表裏의 虛寒이 없으며, 또 治療에 있어 汗下法만 있고 溫補法이 없으며, 《傷寒論》의 六經은 「六區地面」이며 風寒溫熱, 內傷外感, 表裏, 寒熱, 虛實 등을 包含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여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連貫性和 差異點을 提示하였고, 喋⁵⁹⁾ 姜⁶⁰⁾ 등은 “六經의 經絡에 따른 證候를 分類한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으로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深化되고 發展되었다.” 하였고, 南

56) 陳明·劉燕貨·張保偉 撰次整理 :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pp. 17-22.

57)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p.26.

58)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62.

59) 喋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pp. 20-25.

60) 姜建國, 李樹沛 : 傷寒析疑.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9. p.21-23.

<표 2>. 《傷寒論·傷寒例》 및 六經地面

來原 六經	傷寒論·傷寒例	傷寒來蘇集·六經正義·六經地面		
太陽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心者 三陽夾界 三陽地面	開	內有心胸 外自巔頂 前至額顛 後至肩背 下及于足 內合膀胱 太陽地面
陽明	尺寸俱長者 陽明受病也		闔	內自心胸至胃及腸 外自斗顛 由面至腹 下及于足 陽明地面
少陽	尺寸俱弦者 少陽受病也		陽樞	由心至咽 出口頰 上耳目 斜至巔 外自脇內屬膽 少陽地面
太陰	尺寸俱沈細者 太陰受病也	腹者 三陰夾界 三陰地面	開	自腹及二腸魄門 太陰地面
少陰	尺寸俱沈者 少陰受病也		闔	自腹至兩腎及膀胱溺道 少陰地面
厥陰	尺寸俱微緩者 厥陰受病也		陰樞	自腹由肝上膈至心 從脇肋下及于小腹宗筋 厥陰地面

京61)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 하였다.

19 C 末葉의 朝鮮의 李62)는 “三陰三陽은 辨證의 同異를 求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의 理致는 腹背表裏에 있어 經絡의 傳變을 求할 必要가 없다.” 하였

고, 《傷寒論》의 六經病 중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의 病證으로 사람의 臟腑性理에 따른 人物名目으로 認識하여 《傷寒論》의 研究를 症狀中心에서 人物中心으로 轉換시켰고, 《素問·熱論》의 巨陽 少陽 少陰經의 病은 少陽人病·陽明 太陰經의 病은 太陰人病·厥陰經의 病은 少陰人病으로 解釋하여 《素問·熱論》의 症狀分

61) 南京中醫學院傷寒敎研組 編著 :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p. 2.

62) 韓東錫 著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p. 117-122.

〈표 3〉. 《素問·熱論》의 六經分証, 《傷寒論》의 六經病
및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 病症의 比較.

《素問·熱論》	《東醫壽世保元》	《傷寒論》	《東醫壽世保元》
巨陽經病	少陽人病	太陽病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の 病症
少陽經病	少陽人病	少陽病	少陽人 病症
陽明經病	太陰人病	陽明病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の 病症
少陰經病	少陽人病	少陰病	少陰人 病症
太陰經病	太陰人病	太陰病	少陰人 病症
厥陰經病	少陰人病	厥陰病	少陰人 病症

別 中心의 六經分証을 사람(四象人)중
심의 症狀分証으로 轉換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Ⅲ.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의 帛書, 漢
簡 및 漢牘 중에서 馬王堆의 《足
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
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灸 刺
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
며⁶³⁾, 《五十二病方》의 處方에는 理
論體系가 형성되지 않았고 傷寒方面의
處方이 없다. 前漢의 《居延漢簡》에

63) 馬繼興 : 馬王堆醫書考釋. 長沙. 湖南科
學技術出版社. 1992. pp. 321-652.

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
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있고 外感傷寒에 對한 治法 및 方劑의
形成에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다
(64)(65).

東漢 末의 著名한 醫籍 《傷寒雜
病論》의 著者인 張中景은 《傷寒論·
序文⁶⁶⁾》 “ …… 勤求古訓, 博採衆方,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
臚藥錄, 并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

64) 山田慶兒 : 新發現 中國 科學史資料의
研究·譯註篇. 京都. 中村印刷株式會社.
1976. pp. 363-404. 405-416.

65) 曠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
學出版社. 1995. pp. 9-14.

66) 張中景 : 中景全書·傷寒卒病論集. 서
울. 大成文化社. 1984. pp. 20-21.

十六卷 …… ” 하여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的 專門인 論述, 《難經》의 <五十八難> 廣義傷寒說, 脉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의 方劑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67)(68)(69)(70).

67) 班固著, 李世烈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자유문고, 1995. pp. 306-321.

東漢 以前の 圖書目錄에 해당하는 《漢書藝文誌·方技略》에는 醫經, 經方, 房中, 神僊으로 분류된 古醫書가 記載되어 있으며, 醫經에는 <黃帝內經> 18卷, <黃帝外經> 37卷 <扁鵲內經> 9卷, <扁鵲外經> 12卷, <白氏內經> 38卷, <白氏外經> 36卷 및 <傍篇> 25卷의 書目이 있고, 經方에는 <五藏六府痹十二病方> 30卷, <五藏六府疝十六病方> 40卷, <五藏六府痹十二病方> 40卷, <風寒熱十六病方> 26卷, <泰始黃帝扁鵲俞拊方> 23卷, <五藏傷中十一病方> 31卷, <客疾五藏癩癩病方> 17卷, <金創經總方> 30卷, <婦人嬰兒方> 19卷, <湯液經法> 32卷 <神農黃帝食禁> 7卷의 書目이 있다.

68) 許健鵬, 李國清: 中國古代名醫點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pp. 9-23.

69) 皇甫謐: 針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

黃帝三部鍼灸甲乙經序: …… 仲景論廣伊尹湯液爲數十卷用之多驗. 近代太醫令王叔化撰次仲景選論甚精. 指事施用. 按七略藝文志 ……

70) 喋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pp. 2-4.

近年에 敦煌에서 發掘되고 抄寫 年代가 宋代 以前으로 보이는 南北朝 時代의 梁·陶弘景의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의 太醫令 王叔和가 醫書를 收集하고 整理하여 《脉經·卷七》에 發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法의 治療法에 따른 “可” “不可”의 次例로 配列되어 轉載되어 있으며, 《千金翼方·卷九·卷十》의 唐本傷寒論, 北宋의 校訂醫書局의 校訂을 거친 後에 傷寒部分은 《傷寒論》, 雜病部分은 《金匱要略》으로 分卷되었고, 宋 以後의 《傷寒論》의 研究는 王叔和의 編輯이 있다고 여겨 加筆 혹은 增補한 部分을 削除, 修訂 및 註釋을 하여 《傷寒論》의 本來의 모습으로 復原하는 것을 目的으로 “錯簡重訂” “舊論守護”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었다.

이에 論者는 《素問》 《靈樞》의 經脈理論·經脈病候의 諸篇 및 《難經》과 《傷寒論》의 相關關係의 考察은 經絡學說의 認識深化에 必要하다고 思料되어 《傷寒論》의 六經病과 《素問》 《靈樞》 및 《難經》의 經脈理論과의 相關性을 歷代 《傷寒論》의

는 “陶隱居云: 商有聖相伊尹, 撰《湯液經法》三口, 爲方三百六十數. …… 實歷代醫家之規範, 蒼生獲命之大寶也. …… 漢晉以還, 著名醫輩張機, 衛汜 …… 咸師式此《湯液經法》. 憫民疾苦, 造福含靈.” 하였다.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 있는 少陽旦湯은 桂枝湯, 少陰旦湯은 黃芩湯加生薑 …… 少青龍湯은 麻黃湯, 大陰旦湯은 小柴胡湯 …… 小白虎湯은 白虎湯, 小玄武湯은 眞武湯 등과 같이 《傷寒論》 《金匱要略》의 方劑와 아주 類似하며, 또 “張機撰《傷寒論》, 避道家之稱. 故其方皆非正名, 但以某藥名之, 以推之爲識耳.” 하였다.

註釋書를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宋, 明 및 靑代 大部分의 《傷寒論》의 注家들은 六經病의 提綱과 三陰三陽의 條文을 《素問》 《靈樞》의 經絡理論의 六經病으로 榮衛의 生理·病理의인 面에서 註釋하고 있으며, 山田⁷¹⁾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의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 하였고, 柯⁷²⁾는 “仲景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經絡의 病候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다.” 하였고, 西⁷³⁾는 “六經病의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六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그리고 喋⁷⁴⁾은 “《傷寒論》의 六經理論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을 本으로 《素問·氣交變大論》 《素問·熱論》 및 《靈樞·經脈》 등의 理論을 繼承하고 發展하여 成立되었다.” 하였고, 姜⁷⁵⁾ 등은 “《素問·熱論》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하여 傷寒을 急性 發熱性 病變에 歸屬시켰고, “傷

寒一日 巨陽受之, …… , 六日厥陰受之.” 의 六經의 經絡에 따른 證候를 分類한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다.” 하였고, 柯⁷⁶⁾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이며 또한 相當한 差異가 있다.” 하였고, 또 柯⁷⁷⁾는 “《素問·熱論》의 六經은 全적으로 經脈 爲主의 病이며 表裏의 實熱만 있고 表裏의 虛寒이 없고 治療에 있어 汗·下法만 있고 溫補法이 없다. 《傷寒論》의 六經은 「六區地面」이며 風寒, 溫熱, 內傷, 外感, 表裏, 寒熱, 虛實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고, 南京⁷⁸⁾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 하여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辨證과의 連貫성과 差異點을 明確하게 提示 하였고 陸⁷⁹⁾은 “만약 《傷寒論》이 없으면 六經辨證이 失傳되고 六經辨證이 없으면 疾病을 治療하는 理致가 없어진다.” 하였다.

柯⁸⁰⁾는 “원래 仲景의 六經은 모든 病의 治療를 爲하여 立法되었고, 傷寒을

71)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p. 177-178.
72)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7.
73) 西大椿 : 西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807.
74) 喋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pp. 25-28.
75) 姜建國, 李樹沛 : 傷寒析疑.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9. p.7.

76)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62-166. 178-198.
77) 柯琴 :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62.
78)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p.2.
79) 陸懋修 : 陸懋修醫學全書·文十六卷(卷九).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
80) 柯琴 :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62.

專門으로 治療하기 爲한 것이 아니며, 傷寒과 雜病의 治療 理致가 들어 아니며 六經으로 統括할 수 있고 六經에 傷寒이 있지 傷寒에 六經이 있지 않다.” 하였고, 喋⁸¹⁾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區分하고 經絡과 臟腑를 同一하게 重視하여 機能的인 面에서 六經을 臟腑 經絡 氣血의 病變 및 證候를 概括하여 證候特徵 病變部位 寒熱推移 邪正盛衰를 辨別하여 診斷 및 治療의 根據가 되는 理論이다.” 하였고, 呂⁸²⁾는 “仲景의 六經辨證을 理解하면 傷寒治療의 理致를 알 수 있고, 六經辨證을 깊이 洞察하면 百病治療의 理致를 알 수 있다.” 하였다.

19 C 末葉의 朝鮮의 李⁸³⁾는 “《傷寒論》을 爲主로 金元四大家 및 明代의 醫家들의 醫論을 研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라 著述한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太陽病·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의 名目이며,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은 人物의 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傷寒論》의 六經病 중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 少

陰人 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 하여 歷代 《傷寒論》의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 研究에서 사람(四象人)中心의 症狀分類 研究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한편 山田⁸⁴⁾은 “宋 以後 明·清代에 《傷寒論》의 六經辨證이 확립되고, 또 《傷寒論》 屬의 發汗·吐·下·溫·灸·刺·水 및 火의 옛 八法은 《醫學心悟·醫門八法》에서의 汗·吐·下·和·溫·清·消 및 補의 八法과 八綱辨證⁸⁵⁾의 確立으로 六經辨證은 모든 疾病을 視野에 넣는 辨證論治로 飛躍하게 되었고 千數百年의 歲月을 넘어 醫學을 새로운 단계로 突入시키는 張中景의 《傷寒論》은 무시무시한 潛在力을 갖춘 책이었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論集注》 《傷寒論淺注》 등에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六經氣化學說로 《傷寒論》 六經病을 解釋하였고, 또 《傷寒論宗印》에서는 《傷寒論》의 六經病과 《靈樞·經脈》의 流注路線과 是動則病과 是主某所生病의 經脈病候와 連繫하여 論述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六經正義》에서 提唱한 “六經地面說”은 《素問》 《靈樞》의 經脈을 새롭게 解釋하여 《傷寒論》의 六經病 研究의 筌蹄로 闡發

81) 喋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pp. 20-25.

82) 呂震 : 近代中醫診本輯·傷寒分冊·傷寒尋源.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688.

83) 韓東錫 著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p. 117-122.

84)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p. 191-199.

85) 江涵暎 : 筆花醫經·表裏寒熱虛實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3-5.

한 學說로서 經絡에 關한 새로운 視覺을 갖고 研究할 수 있는 繼起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向後에 六經病 提綱과 《素問》의 運氣七篇 및 《靈樞·經脈》의 聯關性에 대한 深度있는 研究를 통하여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의 針灸 領域에서의 適用 可能性 및 “六經地面說”의 연구를 통하여 經絡의 領域과 實質⁸⁶⁾⁸⁷⁾에 對한 思慮있는 研究와 穿鑿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過去·現在·未來의 中國 韓國 및 日本의 醫學史를 貫通하며 老대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傷寒論》의 研究에 關하여 山田⁸⁸⁾은 “에도時代의 日本醫家와 同時代의 中國醫家의 《傷寒論》을 研究하는 方法 및 方向의 差異가 오늘날의 中國漢醫學과 日本漢方の 現住所에 明暗을 드리우고 있다.” 하였는데 이는 現在의 韓國 韓醫學의 研究 方向 및 方法이 未來의 韓國 韓醫學의 位相에 對하여 많은 것을 示唆하고 있다.

IV. 結 論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

論》의 六經辨證과의 相關性에 關한 考察은 經絡學說의 認識深化에 必要하다고 思料되어 《傷寒論》의 註釋書를 中心으로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宋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다.

1) 六經病의 提綱은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한 것이며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六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2.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比較.

1) 《傷寒來蘇集》에서 《素問·熱論》의 六經은 全的으로 經脈을 爲主한 病이며 《傷寒論》의 六經은 「六區地面」(六經地面說)이며 風寒溫熱, 內傷外感, 表裏, 寒熱, 虛實 등을 包含한다 하였다.

2) 《傷寒論》의 六經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傷寒論》의 六經의 다른 見解인 「段階」 「地面」 「症候群」 「六病」 「八綱」 등은 疾病의 對한 認識은 差異이며,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

86) 胡翔龍 包景珍, 馬廷方, 中醫經絡現代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4-6.

87) 王啓才, 謝景平: 當代鍼灸醫學新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p.40-51.

88)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p. 191-199.

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

3. 《傷寒論集注》 《傷寒論淺注》에서 《傷寒論》의 六經病을 《素問》 運氣七篇의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六經氣化學說로 《傷寒論》을 解釋하였고, 《傷寒論宗印》에서는 《傷寒論》의 六經病과 《靈樞經脈》의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및 是動則病, 是主某所生病의 經脈病候와 連繫시켜 論述하였다.

4.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六經病 중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의 病證으로 사람의 臟腑性理에 따른 人物名目으로 解釋하여 《傷寒論》의 研究를 症狀中心에서 사람(四象人)中心으로 轉換되는 轉機가 되었다.

1) 三陰三陽은 辨證의 同異를 求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의 理致는 腹背表理에 있어 經絡의 傳變을 求할 必要가 없다.

2) 《素問熱論》의 巨陽 少陽 少陰經의 病은 少陽人病陽明 太陰經의 病은 太陰人病厥陰經의 病은 少陰人病이다.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중화 :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 (1).

2. 이정훈, 윤중화 :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 (2).

3. 서용원, 윤중화, 김갑성 :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脉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1).

4. 임성철, 손성철, 이경민, 황민섭, 김갑성, 윤중화 : 古代의 經脈診斷法 중 十二經脈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19 (5).

5.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중화 : 古代 經脈病體系에 있어 “是動則病” 과 “是主某所生病” 에 關한 研究, 2002 ; 19 (2).

6. 신광순, 장준혁, 윤중화 :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19 (1).

7. 凌耀星 :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8. 啜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9. 姜建國, 李樹沛 : 傷寒析疑,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9.

10. 福州市人民醫院 : 脉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1. 李景榮 : 千金翼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2. 錢超尖 校注 :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3. 劉渡舟 : 傷寒論臨証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9.

14. 啜發正 : 傷寒學術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15. 鄭城采 : 傷寒 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는

- 문, 1999.
16. 朱肱 著, 임진석 옮김 : 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8.
 17. 陳明·劉燕·張保偉 撰次整理 : 劉渡舟傷寒臨証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18.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19.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20. 蔡仁植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5.
 21. 喋橘泉 收藏 :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22. 李心機 :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23.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24. 王玉川 :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5.
 25. 成无己 :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6.
 26. 龐有執 :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傷寒論條辨, 서울, 大成出版社, 1995.
 27. 喻嘉言 : 喻嘉言醫學全書·尚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8. 韓祇和 : 歷代中醫珍本集成 (三)·傷寒微旨論, 上海, 上海三聯書店, 1989.
 29. 黃元御 : 黃元御醫學全集·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0. 尤怡 : 傷寒貫珠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31. 沈金鰲 :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 吳謙 等編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33. 西大椿 : 西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34. 顧武軍 : 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35. 滑壽 :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36. 張志聰 :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7. 張志聰 :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宗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8. 陳修園 :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9. 揚力 :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40. 俞根初 : 重訂通俗傷寒論,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1976.
 41. 惲樹珏 : 歷代中醫珍本集成(5)·傷寒論研究,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42.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43.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44. 山田慶兒 : 新發現 中國 科學史資料의 研究·譯註篇, 京都, 中村印刷株式會社, 1976.
 45. 張中景 : 中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4.
 46. 班固 著, 李世烈 解譯 : 漢書藝文誌, 서울, 자유문고, 1995.
 47. 許健鵬, 李國清 : 中國古代名醫點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48. 皇甫謐 : 針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49.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50. 陸懋修 : 陸懋修醫學全書·文十六卷(卷

- 九).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1. 呂 震 : 近大中醫診本集·傷寒分冊·傷寒
尋源.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52. 江涵暉 : 筆花醫經. 天津. 天津科學技
術出版社. 1999.
53. 胡翔龍. 包景珍. 馬廷方 : 中醫經絡現
代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54. 王啓才. 謝景平 : 當代鍼灸醫學新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